

# 국민의힘, 강정마을 시위 ‘삐딱 시선’

### 당정, 어제 국회에서 공공질서확립·권익보호 협의 이철규 사무총장 “기물 손괴·공권력 폭행해도 영웅” 윤 대통령의 ‘치유·통합’ 의지와 정면 배치돼 논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집회 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시위자들을 영웅화했다”고 발언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정마을 갈등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시절 ‘치유와 통합’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당에서 갈등을 다시 부추길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노동의 불법 집회는 문재인 정부의 친시위대 정책이 빚은 참사”라고

말하면서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철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를 연이어 사면시키고 오히려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던 경찰관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준 일이 빈번했다”며 “강정마을 시위 당시 공권력에 폭행하고 기물을 손괴한 시위대들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위대에게 청구된 34억원의 구상금을 포기시키고 41명의 범죄자들을 사면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과거 그들의 전 정부이던 노무현 정부

당시 결정된 사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사업을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방해한 자들을 영웅시 시키고 복권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비정상의 공권력을 정상으로 돌려내야 할 때가 되었다”며 “국민의힘은 불법이 난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수수방관하지 않겠다.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불법집회 재발방지 대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손실을 입었다며 시위 참가자 116명 (마을주민 31명 포함)과 단체 5곳에 구상금 34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금 청구는 사회적 논란이 됐고 문재인 정부는 재판부에 조정을 요청, 서울중앙지법은 2019년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보냈다. 이후 이 조정안이 국무회

에서 의결돼 구상금 청구는 철회됐다. 이후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해 2월 20대 대선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강정마을을 정쟁이 아닌 치유와 통합, 평화의 상징적인 장소로 바꾸겠다”며 “제주 해양관광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이날 발언은 윤 대통령이 밝혔던 ‘치유와 통합’ 의지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여당 의원들의 제주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제주4·3 김일성 지령설’을 주장한 뒤 논란이 되자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고 당 윤리 징계까지 받았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 “자연재난 대비 현장지원반 확대 운영”

### 도·행정시, 울여름 현장중심 촘촘한 대응체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직자 비상근무체계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태풍은 주의보 단계에서 공무원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호우·강풍 시 제주도는 전 지역, 행정시는 3개 구역 경보 발생 시 공무원 비상근무가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국지적 집중호우 또는 강풍 발생 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 잦아 일률적인 비상근무 편성으로는 효율적인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특히 지난 4-5일 제주 일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으나 상황관리반 위주의 비상근무, 읍면동은 당직자 중심 근무로 기민한 대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태풍

때만 운영하던 실·국 현장지원반을 호우·강풍시에도 확대 운영하고, 행정시에서도 부서별 현장지원반을 가동해 일부지역 경보 발령시 해당 읍면동 담당 실·국과 행정시 부서에서 현장 출동해 읍면동 재난 대응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와 행정시 현장지원반은 읍면동 집중호우에 따른 도로침수와 도로지장물 제거, 저지대 반지하주택 예방활동, 인명피해 우려지역, 급경사지 등 취약지역 예찰활동 및 해안가 등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등 출입통제 역할 등을 하게 된다. 또 경보발령 해당 읍면동 공무원도 비상근무를 실시해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보완할 방침이다. 고대호기자 bigroad@ihalla.com

# 출근길 해경, 의식 잃은 60대 살렸다

### 한림파출소 문현석 경장 오토바이 사고현장 목격 심폐소생술로 피해자 살려



혈도 있었다. 문 경장은 즉시 기도 개방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약 1분간의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자 A씨의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문 경장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A씨를 안정시켰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빠른 응급조치 덕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경장은 2019년 해양경찰에 입문해 특임 구조 직책을 담당하며 한림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다. 문 경장은 “반복적인 파출소 교육훈련과 구조대 합동훈련 등으로 인명구조 임무에 임해왔기 때문에 몸이 저절로 반응해 환자에게 달려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 말했다. 김도영기자

출근하던 해양경찰관이 사륜 오토바이 전복사고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을 발견, 신속하게 응급처치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제주해양경찰서 한림파출소 소속 문현석(40·사진) 경장은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한림파출소 인근에서 사륜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문 경장은 A씨의 상태를 살피며 주변에 있던 시민에게 119신고를 요청하고 해경 한림파출소 대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발견 당시 A씨는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머리 쪽에 출



연등이 신기한 아이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사흘 앞둔 24일 제주시 삼양동 불타사를 찾은 아이들이 신기한 듯 연등을 바라보고 있다. 김희민기자

# 다문화가정 등 500곳 소방 소화기 무료보급

제주지역 외국인 시설과 다문화 가정에 소화기가 무상 보급됐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3일 제주도청에서 외국인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화기 기증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외국

인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외국인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과 함께 제주 도내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주도 의용소방대연합회에 외국인 안전권 보장을 위해 소화기 500개를 기증했다. 기증된 소화기는 의용소방대 등을 통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 및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외국 김도영기자

# 양돈장 철거작업 중 화재

양돈장 리모델링 공사 중 산소절단기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나 17분 만에 진화됐다. >> 사진 24일 제주서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52분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의 한 양돈장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인근 밭에서 작업을 하던 주민이 다량의 검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소방당국은 장비 8대와 인원 18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 오전 11시9분쯤 모든 화



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양돈장 외벽 10㎡가 그을음 피해를 입고 카고 크레인과 트랙터 등이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17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미늘·더덕 씹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1포/150~400평 사용 노동력 50% 절감

1포/1,000~2,000평 사용 노동력 70% 절감 \*영양제 100종류 \*3~8개월 완효성 슈퍼코트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 빌려주고 못받은돈, 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회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